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405
----------	------

발의연월일 : 2025. 1. 9.

발 의 자 : 김영호 · 한민수 · 김남근
김동아 · 박민규 · 진선미
이병진 · 강선우 · 김영배
이용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 지침에서는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경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안에서도 낙후된 지역은 경제적 수요 부족에 더하여 지역균형발전 가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힘든 실정임. 일례로 서울 내 대표적인 철도 재정사업인 강북횡단선의 경우 교통소외 지역인 서울 강북권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상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소요 기일

을 훌쩍 넘겨 지연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수도권 내 자치구 등 간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수도권 사업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도입하여 이를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구분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제2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 평가결과 가중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
⑥ (생 략)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u>제6항</u> 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제7항</u> ----- ----- ----- ③ (현행과 같음)